서울 양천구 신월5동 최성덕(오른쪽) 동장이 지난해 12일 홈몸 어르신 집을 찾아 안부를 물어보고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행정서비스 방향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신월5동주민센터 제공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 김진현(앞줄 가운데) 국장과 직원들이 1월 30일 경북도청 사무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 지방자치단체 평가 광역도 부문 1위에 오른 경북도는 행정서비스 환경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북도 제공

이웃 문제 직접 발벗고 찾아 '찾동' 복지 402개 洞으로 확대

특별·광역시 1위- 서울

학교 앞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 주민이 의제 정해 해결 가능케

박원순 시장 "사람 중심 시대 일상 행복 찾아주는 게 행정"

"어떤 할아버지가 바퀴벌레가 들끓는 집에 혼자 살고 있다는데 한번 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지난해 5월, 서울 양천구 신월5동의 반장 중 한 명이 동주민센터로 전화를 걸어왔다. 동네 주민이 전하기를 홍간 소음이 너무 심해 위층에 올라가 보니 주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1시간 뒤, 해당 장소로 출동한 주민센터 직원들이 목격한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다. 온 집안에 바퀴벌레가 우글거렸고 곳곳에 악취가 진동했다. 넘장고, 세탁기, 밥솥 등 살림살이는 쓸 수 있는 게 없었다. 층간 소음의 원인은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집주인이 한껏 올린 TV 볼륨 탓이었다. 직원들은 연락이 끊긴 아들을 수소문하는 등 급히 수습에 나섰다. 지역 복지관과 연계해 도배까지 새로 하는 대청소날 실시했고 이후에는 동네 주민인 공공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자택을 방문하며 안부를 살폈다.

안신영 신월5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는 "평소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통장, 반장들과 주민센터 직원들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신속한 개입이 가능했던 사례"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행정서비스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 맞춤형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찾아가는 복지 행정'을 표방하는 '찾동' 사업이 대표적이다. 앉아서 도움 요청이 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동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위기 가구를 찾아가 필요한 건강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4년 차를 맞는 '찾동'은 5월까지 60개 동이 더 참가해 24개 자치구 총 402개 동으로 확대된다.

'찾동' 사업은 비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주민들이 직접 의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주민 자치' 사업도 '찾동'의 중요한 한 축이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주민센터의 경우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북가좌초등학교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댄 결과였다.

여러 조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는 거창한 것이라기보다는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 많다. 지난해 서울시민 12만 1,920명이 뽑은 최고의 시책은 공공자전거 '따릉이'였다. 그 뒤를 이은 건 지저분한 학교 화장실을 깨끗이 정비하는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함께 꿈' 프로젝트다. 이와 함께 서울형 미세먼지 10대 대책(5위)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8위)과 같이 대체로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재작년(2016년) 1위는 심야 시간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승객 10~13인을 태우는 '쏠버스'였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복지 예산을 두 배 늘려 지난 6년 동안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일에 투자했다"며 "평창적 개발과 토건의 시대에서 사람 중심 시대로의 전환이 시대적 흐름과 맞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결국 각각의 시민이 보통의 삶, 평범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일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정치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욱진 기자

高순도 공업용수 단지 조성 지역기업 최대 고충 해결사로

道 1위- 경북

청년 1800명에 복지카드 혜택 일자리·환경 분야 등 크게 개선

김관용 지사 "지역이 국가의 힘 도내 구석구석 양질 행정 노력"

"공업용수가 수돗물보다 순도가 20배나 높다고요?"

2015년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경북도가 '고순도 공업용수'에 착안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도가 물 관리에 스마트 개념을 도입하려 2016년 말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 아사히글라스 등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고순도 공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기업마다 별도 부지 확보와 소규모 생산에 따른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었다. 도가 확인한 결과 공장 가동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불순물을 최소화한 공업용수로, 수돗물 순도의 20배는 돼야 첨단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도는 당장 구미시와 공동으로 '고순도 공업용수 국산화 시범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중앙부처와 보폭을 맞췄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2025년이면 세계 고순도 공업용수 시장이 68조원 규모로 성장한 전망인 데다 국내 시장도 2020년이면 1조7,0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며 "첨단 전자와 탄소 소재 분야에 고순도 공업용수 수요가 늘고 있어 경북도가 직접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자체 평가에서 중하위권에 머물렀던 경북도가 선두로 치고 올라온 것은 행정서비스 분야가 눈에 띄게 개선된 덕분이다. 고순도 공업용수 시범단지 지정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이 대표적 사례다.

환경 분야도 독보적인 행정서비스 분야 중 하나다. 도는 노후관 교체와 정수장 정비 등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센서와 전자통신 기술을 접목한 원격 누수감지 시스템과 구간별로 상시 측정하는 블록시스템을 가동했다.

올해 마무리되는 구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사업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매일 9만톤의 하수를 정제해 구미 2·3 국가산업단지 내 업주 기업에 공업용수로 공급하면 연간 4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게 된다.

경북도의 환경정책은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사업과 친환경 휴가 보내기, 동절기 내복 입기 등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종이팩과 유리병 회수율을 전년보다 15% 이상 끌어올려 환경부의 '3차 지자체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경북의 회수율은 75%로 전국 평균 49%보다 훨씬 높다.

한과가 기승을 부리는 동절기에도 환경사랑은 이어지고 있다. 내복 입기를 생활화해서 실내온도를 2도 낮추면 온난가스 1인 1톤 줄이기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일주일에 한 번 운전대를 놓고, 휴식시간에는 컴퓨터를 절전모드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에는 여름 겨울이 따로 없다.

경북도 행정서비스는 지역개발과 교육, 교통,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 상위권에 올랐다. 도내 젊은이 1,800명이 지난해 청년복지카드의 혜택을 봤고 도시 젊은이를 시골에 정착시키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에 3팀이 경북 문경 등에 정착하는 등 일자리가 경북의 화두가 되고 있다. 또 바이오 산업과 융복합 탄소 성형, 스마트 디바이스, 항공부품 산업, 화장품 특화단지,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 등 경북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미래산업이 해를 이어 육성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북도청이 안동·예천 신도시 시대를 연 지 곧 3년이 되는 만큼 경북 구석까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지역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힘"이라고 말했다.

안동=전준호 기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42호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1~2공구) 사업계획(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80호(2015.12.10.)로 사업계획 승인받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72호(2016.7.18.), 제2017-892호(2017.10.13.)로 사업계획변경 고시된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서울특별시 시행구간(1~2공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계획 개요 (변경없음)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수택동, 교문동, 인창동, 아천동, 남양주시 호평동, 진건읍 배양리, 내곡동
나. 규 모 : 연장 12.91㎞ (정거장 6개소, 차량기지 1971㎡ 1곳)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 류 : 철도 : 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 :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변경없음)
(1)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여삭로)(끼) 경기도청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209(교문동) 구리시청
경기도 남양주시 경온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
(2) 성 명 :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구리시장, 남양주시장

4. 사업기간 : 2015년 12월 ~ 2022년 12월(변경없음)

5.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20일간

6. 열람장소 : 아래와 같음
(수용및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 별첨 토지조서, 편지철(1:1000), 편면철)

7. 열람장소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시청사 중구 장제인로 프레미어캐슬센터 D동, ☎772-7189, 7180)
경기도구간 도시계획과(☎3425-6021), 교통행정과(☎3425-6214)

8. 기타사항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공고 제 2018 - 128호

목포 도시관리계획(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재열람·공고

목포시 정기예금원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와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된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1.

목 포 시 장

1. 주민 의견청취 재열람 사유
주민공람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 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와 규정에 의한 주요 변경사항 재열람·공고

2.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변경 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 (변경) 조서

구분	명칭	류별	형별	목표	기능	규모 연장(m)	규모 기점	규모 종점	사용 제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소로	1	2류	1중	국지도로	669	원1-13 연산동 633-1번지	원1-13 연산동 1239-3번지	일반도로		목포시고시 제2007-413호 2007.5.11.	
신설	소로	1	소	1중	국지도로	115	도1-6 연산동 774-3번지	연산동 774-3번지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소	중	국지도로	319	연산동 380-3번지	연산동 749-11번지	일반도로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1-374		폭원 : 10m → 15m	계획도로상 기존 및 시공지 차로를 감안하여 폭원
	소로1-A	노선신설 L=105m, W=15m	- 산단내 원활한 교통과 토지를 위한 신설
	소로1-A	노선신설 L=319.5m, W=15m	- 산단내 원활한 교통과 토지를 위한 신설

3) 공간시설
■ 녹지 결정 (변경) 조서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목포시 산정동외 일원	118,710	231,341	350,051	건설부고시 제1985-176호 1985. 4. 19.	

■ 결정 사유서

도로관리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완충녹지	변경 231,341	장기미집행시설로서 재정비대상, 경제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하여 현황녹지 실별구간 축소

2.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목포시청 도시계획과
3. 열람·공고기간 : 2018. 2. 1. ~ 2018. 2. 14. (14일간)
4.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도시계획과 (☎061-270-86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과 소금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다

안국준의 물과 소금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

개정 증보판

물과 소금, 만병을 다스리는 최고의 의사

물과 소금에 대해 강조하는 의사들은 별로 없다. 물과 소금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해도 치료약으로 물과 소금을 절대 권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약이나 주사로 처방을 해야만 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소금만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것도 약으로 처방하게 되며 환자도 물과 소금은 가장 흔한 것이기 때문에 약으로만 해결하려 든다. 부작용이 없이 자연스럽게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약이 바로 물과 소금인데도 불구하고 약이라야만 치료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 진정으로 가장 유능한 의사는 약을 쓰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인 것이다.

안국준(청생생활과학연구소장) 지음
신국판 | 336쪽 | 값 15,000원

전국서점 절찬 판매중

생활 건강의 길잡이 태웅출판사 전화 : 02)515-9858~9 팩스 : 02)515-1950 등록 신고 : 제 2010-서울강남-02871호 홈페이지 : www.taiwoong.com